

EOA, 채산성 악화 "위험수위"

원료가 22%인상 불구 제품가연동 4%선 ... 국제가는 국내가의 83.6%

국내 비이온계면활성제 시장이 급격한 채산성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비이온계면활성제인 EOA 시장이 원료인 EO 생산기업들의 계속된 가격인상으로 95년들어 채산성이 급격히 하락, 평균가동률이 50%에도 못미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같은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은 5% 연동에도 못미치는 등 적정가격의 80%수준에 그쳐 최근의 경영악화를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EOA 판매가격 추이

(단위 : 원/Kg, %)				
구분	판매가격	증감률	적정가격	증감률
1991	1,050~1,150		1,200~1,250	88~92
1992	960~1,100	▽8.6~▽4.3	1,200~1,250	80~88
1993	960~1,100		1,220~1,270	78~86
1994	1,050~1,150	9.4~4.5	1,220~1,270	86~90
1995	1,050~1,200	0~4.3	1,250~1,300	84~92

EOA 제조원가 구성비

(단위: 1000원/Kg, %)					
구분	1993.10		1995.10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재료비	750	65.2	896	77.9	19.5
기타생산비	354	30.8	350	30.4	▽1.1
이윤	46	4	▽96	▽8.3	▽208.7
공장도가격	1,150	100	1,150	100	

94년 12월부터 95년8월까지 원가 상승현황을 보면, EO 생산기업인 호남석유화학을 비롯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이 두차례에 걸쳐 동시에 톤당 88만1000원으로 94년12월 72만3000원에 비해 21.8%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95년10월 현재 국제가격이 73만7000원(국내 도착도가격)임을 감안할 경우 19.5% 높은 것으로 국내가격의 83.6%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제시세에 비추어 턱없이 높은 가격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경우 EO시장이 시장경쟁하에서 철저하게 수급과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EG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동시에 같은 폭으로 가격인상이 이뤄지는 등 EOA 생산기업의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OA 생산기업들은 원료가격이 국제시세보다 훨씬 높아 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한 저가전략의 외국산과의 가격경쟁으로 수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원가부담과 가동률 하락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근에는 원가상승의 주요인인 EG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원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EOA기업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5년말 현재 EOA 판매가격을 보면, 톤당 105만~120만원(적정가격은 125만~130만원)으로 적정가격의 84%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채산성면에서도 95년10월 기준 Kg당 재료비 896원, 생산비 350원으로 공장도가격 1150원을 감안, Kg당 96원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8개월 사이에 이윤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208.7%의 이윤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실제 EOA 생산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6/1/15>

